

삼성, Z폴드8 ‘0.001g’ 단위 최적화 외신 “여러 세대 개발한 경험 빛나”

디스플레이 공간 등 구조 재설계
작은 개선을 기기 전반에 쌓아
아이폰 듀오 대비 약 21% 가벼워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0.001g 단위의 미세한 감량부터 디스플레이와 내부 부품 배치까지 기기 전반의 설계를 최적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보다 53g 가벼운 무게를 구현한 배경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한 폴더블폰 설계 경험이 있다는 외신 평가가 나온다.

5일 IT 전문매체 샘모바일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8은 아이폰 듀오와 동일한 7.6인치 내부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지만 무게는 201g으로 아이폰 듀오(254g)보다 53g, 약 21% 가볍다. 두께 역시 폴드8이 접었을 때 9.7mm, 펼쳤을 때 4.5mm로 아이폰 듀오의 11.3mm, 5.2mm보다 얇다.

샘모바일은 이 같은 차이가 디스플레이 지지 구조와 내부 부품 배치, 배터리 공간, 방열 시스템 등 기기 전반을 재설계한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폴드8에 티타늄 합금 필름과 티타늄 플레이트를 적용한 ‘플렉스 티타늄’ 구조를 적용했다. 티타늄 합금 필름은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구조를 기존보다 10% 얇게 만들면서도 화면을 펼쳤을 때 디스플레이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도록 설계했다.

외부 프레임에는 ‘어드밴스드 아머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티타늄은 디스플레이 하부 등 필요한 부분에 적용했다. 아이



‘갤럭시 Z 플립8’, Z 폴드8 울트라’, ‘갤럭시 Z 폴드8’ 등 폴더블 신제품 3종./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폰 듀오가 외부에 5등급 티타늄, 내부 구조 프레임에 알루미늄을 사용한 것과 다른 방식이다.

부품 단위에서도 무게를 줄였다. 삼성전자는 약 270개 부품과 180종 이상의 보조 부품을 검토해 회로기판을 재설계하고 약 15종의 보조 부품을 제거하거나 하나의 구조로 통합했다. 일부 변경을 통해서 0.001g 수준까지 무게를 줄이는 등 작은 개선을 기기 전반에 쌓아 전체 무게를 낮췄다는 설명이다.

방열 구조도 차이가 있다. 폴드8은 개선된 그래파이트와 접합 금속층을 활용해 열을 분산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아이폰 듀오는 프로세서와 맞춤형 베이퍼 챔버를 연결해 열을 이동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내부 공간을 효율화하면서 배터리 용량도 확보했다. 폴드8에는 4800mAh 용량의 실리콘-탄소 배터리가 탑재됐다. 디스플레이와 내부 부품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는 동시에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 얇은 두께와 배터리 용량을 함

게 확보한 것이다.

내구성 검증도 병행했다. 삼성전자는 최신 갤럭시 Z 시리즈에 반복적인 폴딩과 낙하, 압력, 습기·이물질 등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신뢰성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샘모바일은 삼성전자가 폴드8을 201g까지 낮추는 과정에서 디스플레이부터 회로기판과 보조 부품, 배터리와 방열 구조까지 기기 전반을 재검토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품을 작게 만들고 배치를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폴더블폰을 개발해 온 경험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갤럭시 Z 폴드8은 S펜을 지원하지 않는다. 반면 아이폰 듀오는 올해 말 애플펜슬 지원이 예정돼 있어 필기나 스케치 등 펜 활용을 중시하는 이용자에게는 차별점이 될 수 있다고 샘모바일은 짚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최태원 SK 회장, 9440억 지분 매각 추진

PRS 방식으로 주주 영향 최소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자금 마련을 위해 9440억원 규모의 SK(₩) 지분 매각에 나선다. 다만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주가수익스왑(PRS) 방식으로 진행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보유 중인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해 총 944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시상 거래 목적은 ‘개인 소요 자금 조달’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액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PRS는 정산 시기의 주가가 계약 당시 주가보다 높으면 해당 차액을 발행사가 가져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발행사가 증권사에 차액을 보전하는 파생상품이다. 정규시장에 대량의 주식을 한 번에 팔면 주가는 폭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가 주식을 먼저 사간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최 회장이 본인 주식을 넘긴 것이다.

주식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최

회장은 4000억원의 현금을 즉시 확보할 수 있다. 3년 뒤 한국투자증권이 주식을 처분할 때, 주가가 기준가(58만7000원)보다 높으면 차익을 최 회장에게 지급하고, 낮으면 최 회장이 손실을 보전한다. 거래가 완료되면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7.8%에서 15.5%로 2.3%포인트(p) 낮아진다.

SK그룹 측은 시장과 주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경영과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거래 구조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지분 매각 이후에도 최 회장의 최대주주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25.2%에서 22.9%로 낮아지지만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는 30.5%를 유지한다. SK그룹은 안정적인 경영 기반에도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PRS 방식을 선택하면서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구구지치와 경영 안전성을 함께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HD현대사이트솔루션, 대형 전동지게차 선택

10~18t급 추가… 전동화 수요 공략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국내 최초로 대형 전동지게차를 선보이며 디젤 중심의 고중량 산업현장 전동화에 나선다. 중형에 이어 대형까지 제품군을 넓혀 조선소·항만·철강 등에서 전동화 수요 공략에 속도를 낸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최근 충북 음성 공장에서 ‘차세대 전동지게차’ 신모델 시승 행사를 열고 양산에 돌입한 10~18톤(t)급 대형 전동지게차를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중형 모델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 10~18톤급 대형 모델을 추가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전동지게차 라인업을 구축했다. 국내에서 10톤급 이상 대형 전동지게차를 제조하는 업체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유일하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과 급속 충전 기술을 적용해 내연기관 제품과 동급의 작업 속도와 등판 성능, 출력을 구현했다. 18톤급 모델은 1회 충전으로 최대 9시간 작업할 수 있다. 120kW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1.5시간 만에 배터리를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장비에 따라 1회 충전으로 최대 14시간까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출시한 16톤급 대형 전동지게차. /HD현대건설기계

지 가동할 수 있다.

안전성도 강화했다. 고전압 회로와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설계를 적용해 미국 배터리 시스템 안전 표준인 ‘UL 2580’ 인증을 확보했다. IP67 등급 이상의 방수·방진 설계도 적용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중장도 작업 기준 약 2~3년이면 디젤 제품과의 초기 가격 차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관계자는 “대형 차세대 전동지게차는 내연기관 지게차에 준하는 성능을 바탕으로 생산성 저하 없이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

현대차·기아, 친환경차 중심 해외시장 질주

북미·유럽 등 글로벌 판매 호조
‘친환경·전동화’ 맞춤형 전략 주요
국내 신차 출시·생산 정상화 과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올해 3분기 국내 시장에서 판매 감소를 겪은 반면 해외 시장에서는 친환경차를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북미에서는 하이브리드차(HEV)가 판매 확대를 견인했고, 유럽에서는 전기차 중심의 전동화 수요가 확대되면서 지역별 맞춤 전략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3분기 글로벌 판매는 각각 91만8660대, 84만6764대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했지만 기아는 7.9% 증가하며 역대 3분기 최대 판매 기록을 새로 작성했다. 현대차는 해외 판매가 78만7192대로 8.2% 감소한 반면 국내 판매는 13만1468대로 27.2% 급감했다.

기아는 국내에서 14만522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보다 2.2% 늘었지만, 해외 판매는 70만3494대로 8.9% 증가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특히 3분기 스포티지 15만346대, 셀토스 10만9256대, 쏘렌토 5만6928대 등 SUV 중심의 글로벌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북미에서는 친환경차 전략이 성과를



기아 스포티지.

/기아

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3분기 각각 24만6896대, 23만6659대를 판매했다. 전년 대비 현대차는 3.3%, 기아는 7.8% 증가한 것으로 양사 합산 판매는 48만3555대에 달했다. 현대차는 3분기 미국 판매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기아 역시 사상 최대 분기 판매를 달성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HEV가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했다. 현대차의 3분기 미국 판매 가운데 하이브리드 비중은 28%까지 확대됐으며,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미국 3분기 하이브리드 판매는 13만8112대로 전년 대비 53.4% 증가했다.

유럽에서는 전기차 판매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의 유럽 판매는 53만4525대로 전년보다 0.8% 감소했지만, 기아가 29만697대로 6.9% 증가하며 선방했다. 현대차도 투싼

하이브리드와 코나 하이브리드·EV, 캐스퍼 일렉트릭 등이 친환경차 판매를 뒷받쳤다.

유럽 전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8월까지 EU 시장에서 BEV 판매 비중은 21.7%로 1년 전 15.8%에서 크게 확대됐고, 하이브리드차 비중도 36.6%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현대차의 판매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현대차는 파업과 추석 연휴, 신차 대기수요 등이 겹치며 3분기 국내 판매가 크게 줄었다. 기아 역시 국내 판매 증가폭이 해외보다 제한적이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기아의 3분기 실적이 ‘내수 부진-해외 전동화 성장’이라는 양극화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북미에서는 HEV, 유럽에서는 EV라는 지역별 소비자 선호에 맞춘 전동화 전략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판매 방어에 나서는 반면 국내에서는 신차 출시와 생산 정상화를 통한 판매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최근 한국 시장에서의 부진과 관련해 “최근 한국 시장에서의 일시적인 판매 조정은 제품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타이어, ‘벤티스’ 딜러·소비자 점점 확대

‘2026 벤티스 익스피리언스 데이’ 성료

한국타이어가 딜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초고성능타이어 브랜드 ‘벤티스’의 주행 성능을 알렸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2026 벤티스 익스피리언스 데이’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행사 첫날에는 수도권 딜러사 관계자 48명이 참여했다. 이튿날에는 800명 남짓 지원한 사전 모집을 거쳐 선정된 일반 소비자 48명과 자동차 인플루언서 48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BMW M2부터 M5까지 고

성능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트랙과 짐카나 코스를 주행했다. 쫓는 노면에서 긴급 제동과 회피 주행도 체험하며 ‘벤티스 에보’와 ‘벤티스 S1 에보 Z’의 접지력과 핸들링, 제동 성능을 확인했다.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고속 주행과 급격한 코너링을 체험하는 ‘M-TAXI’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해당 차량에는 엑스트림 슈퍼 스포츠 타이어 ‘벤티스 에보 Z’를 장착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5월 비수도권 딜러를 대상으로 같은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도권 딜러와 일반 소비자도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이승혁 기자 sh95@